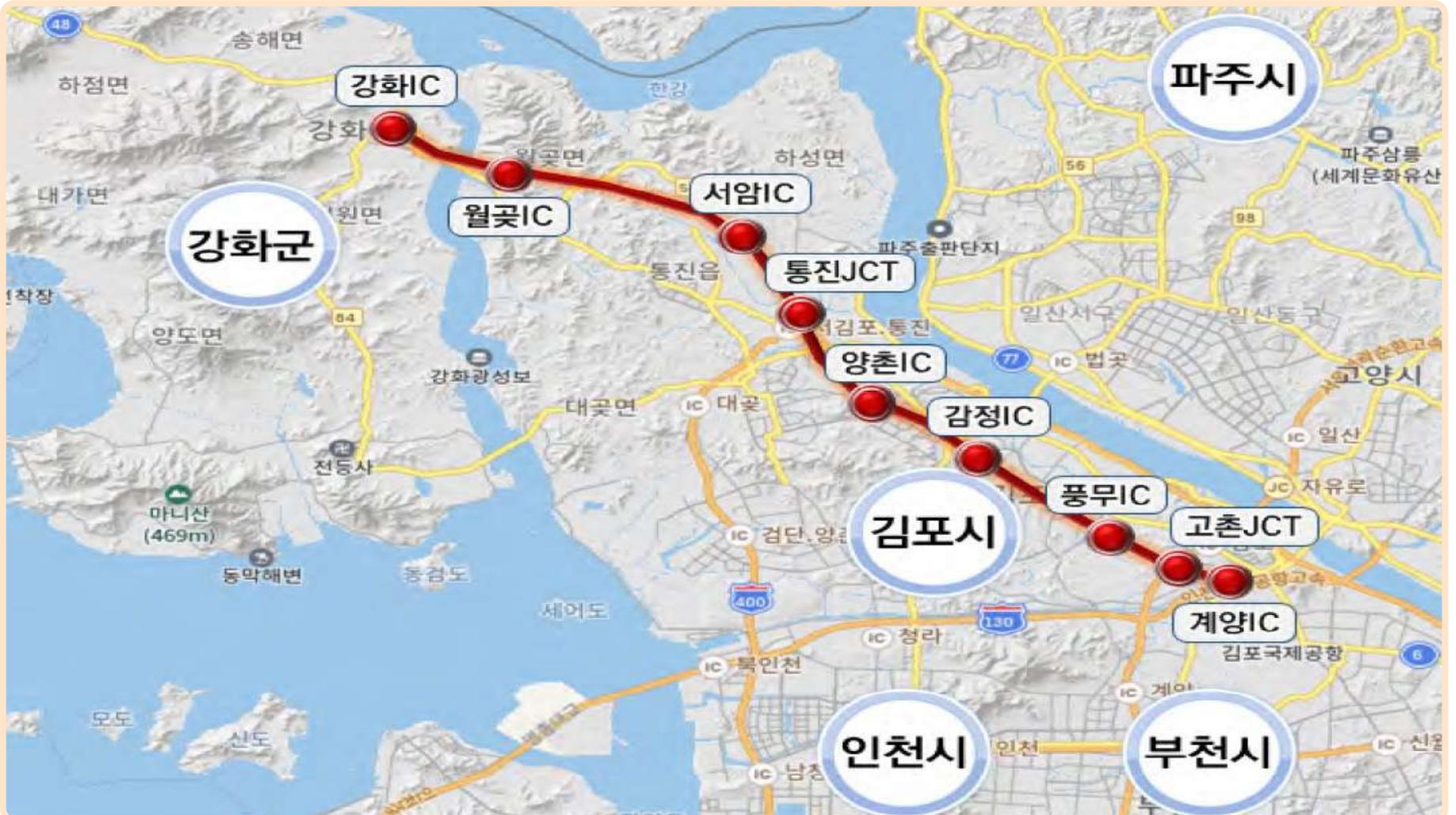


강화군 숙원사업 '강화~계양 고속도로' 강화구간 우선 착공

유천호 군수, 단계별로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접근
배준영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공조 끝에 맺은 행정의 결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숙원사업인 '강화~계양 고속도로' 사업이 강화 구간부터 우선 착공한다.

유천호 군수는 배준영 국회의원과의 긴밀하게 협력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의 관계자로부터 강화 지역 교량부터 착공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계양 고속도로'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 그동안 구뚫발이 닳도록 뛰었다. 지난 2018년 11월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지난 2020년 8월 사업을 확정했다.

이어, 유 군수는 강화 구간부터 착공을 위해 배준영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며, 지난 21년 10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올해 2월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당시 대선후보)를 만나 현안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등 행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

'강화~계양 고속도로'는 사업비 2조 8859억 원을 투입해 강화읍 갑곶리부터 계양구 상야동까지 총 29.9km를 4~6차로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0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기본·실시 설계를 거쳐 오는 2024년 착공해 2031년 개통된다.

'강화~계양 고속도로'의 개통은 수도권으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군민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와 함께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유천호 군수는 "배준영 국회의원과의 함께 단계별로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으로 강화 구간 우선 착공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며 "군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강화군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 - 최백하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 유천호 군수협력(사진제공 강화군청)

유천호 강화군수, 공약실천을 위한 첫걸음

| 민선 8기 공약 이행방안 마련 | 8개 분야 116개 세부사업으로 관리 |



민선8기 공약사항 보고회 (사진제공 강화군청)

유천호 강화군수는 민선8기 군민과의 약속 5대 공약을 실행방안을 구체화했다.

민선 8기 5대 공약으로 ▲광역 교통망, 도로망 및 대중교통 확대 ▲마을 중심 여가시설 확충 ▲적시적소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안정적인 농·축·수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청년 취·창업 지원, 주민재산권 보장 ▲관광 인프라 확충을 군민들과 약속했다.

군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군수실에서 부서별로 공약사항 사전 검토 보고회를 개최하고, 8개 분야 116개 세부사업별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공약 이행을 위해 ▲지역개발분야 12개 사업 ▲산업·경제·일자리분야 12개 사업 ▲도로·교통분야 12개 사업 ▲농·수·축산업분야 15개 사업 ▲문화·체육·관광분야 24개 사업 ▲교육·청소년분야 10개 사업 ▲복지분야 23개 사업 ▲생활환경개선 8개 사업 등 총 116개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했다.

군은 매월, 분기별, 연도별로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사업별 추진상황을 군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강화~계양 고속도로 건설 ▲영종~신도~강화 연륙교 건설 ▲서울~김포~강화 전철 연장 ▲국도 48호선 마송~강화 확장 건설 등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 및 외부기관 등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회의원 및 중앙 부처 장관을 직접 만나 돌파구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유천호 군수는 “공약사업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 역점사업이다”며 “약속을 지키는 군수, 능력이 입증된 군수로 오로지 군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없던 길도 만들어 강화군을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천호 강화군수는 공약사항과는 별도로 군민의 행정수요를 수시로 파악해 ▲일자리 창출 ▲출산·보육 지원 ▲교육 지원 ▲주거·정주 여건 개선 ▲도서연계 ▲특수상황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에 활력을 주는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대책을 마련해 군민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

강화군의의회, 제9대 당선인 간담회 및 교육 실시



제 9대 강화군의의회 당선인(사진제공 강화군청)

강화군의의회는 23일 제9대 군의회를 이끌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첫인사와 함께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치하며 성공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는 다짐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의원 당선인 소개 및 인사, 의회사무과 주요 업무 보고, 제9대 개원 일정 안내, 의정활동에 대한 특강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유호룡 前의장이 ‘군민이 원하는 의원의 자세’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의원 겸직금지 등의 윤리 강령과 규범, 의원 신분에 관한 법령 사항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제9대 강화군의의회는 가선거구 박승한(국민의힘/3선), 한승희(국민의 힘), 오현식(더불어민주당/재선), 나선거구 배충원(국민의힘), 박흥열(더불어민주당) 최종찬(국민의힘) 6명과 비례대표 고복숙 당선인 1명을 합쳐 총 7명으로 구성됐다.

다음 달 4일에는 제279회 임시회에서 전반기 강화군의의회를 대표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원 구성을 시작으로 임기 4년의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게 된다. ▣

정수용 해병대 제2사단장에 명예군민증 전달

| 지역 발전 및 군민 편의 증진 기여 |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17일 군수실에서 정수용 해병대 제2사단장에게 '강화군 명예군민증'을 전달했다.

정수용 해병대 제2사단장은 지역 발전과 군민들을 위해 군사 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농번기 대민지원, 지역 장애인 및 노인복지 시설 봉사활동 등에 적극 나서며 군민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유천호 군수는 “정수용 사단장님께서 평소 보여주신 강화군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강화군은 해병대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지역으로 앞으로도 강화군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명예군민증은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인사에게 수여된다. 명예군민은 관내 문화·관광시설 방문 시 각종 편의가 제공되며, 지역 행사에 정중한 예우로 초대된다. **1**



정수용 해병대 제2사단장 명예군민증 전달식(사진제공 강화군청)

강화군, 깨끗한 강화만들기 '총력'

| 쓰레기 재활용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 조성 |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등을 통해
“길거리 어딜 가도 ‘깨끗한 강화’,
깨끗한 환경 속에서 ‘누구나 살고 싶은 강화’ 조성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250개소(기존 225 → 475개소)
무단투기감시 CCTV 확대: 100대(기존 363대 → 463대)
재활용 전용봉투 보급 확대: 150만매(21년 100만매 → 22년 150만매 제작)

22년 환경위생과 군정운영방향(사진제공 강화군청)

코로나19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생활 쓰레기 배출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강화군은 쓰레기 감량과 불법투기 근절에 나서며 ‘깨끗한 강화, 살기좋은 강화’ 환경을 조성하며,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이 되는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재활용 동네마당’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역점사업으로 지난해 225개소에 설치했다. 올해는 분리배출 취약지 250개소를 선정해 150개소는 설치를 완료했다. 군의 심벌마크인 햇불을 형상화해 만든 재활용 동네마당은 마을의 미관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재활용 동네마당은 반응형 감시카메라와 투기경고로 무단투기를 감시하고 있으며, 자원관리를 배치해 쓰레기 관리와 분리배출 방법 등을 직접 안내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군은 기존에 소각용, 매립용으로 구분하던 쓰레기봉투를 ▲투명 페트병 ▲캔 ▲플라스틱 ▲유리병 등 4종류로 구분한 ‘재활용 전용 봉투’를 제작해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올해에만 104만 장을 제작·보급해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분리배출이 의무시행 된 ‘투명 페트병’에 대한 주민 참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 했다.

이외에도, 군은 올해에만 상습 투기지역에 감시카메라 200대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한다. 감시카메라는 주·야간 동작감시 기능을 갖추고 전담 요원이 모니터링해 올해에만 283건의 과태료를 부과 했다.

유천호 군수는 “길거리 어딜 가도 깨끗한 강화를 위해 쓰레기 감량 및 불법투기 근절 시책을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1** - 최벽하 기자

강화소창체험관 참여형 문화행사 개최

| 6월 소창으로 소풍가자! 성료 | 전통문화체험으로 문화갈증 해소 |



디자이너 이효재 선생의 소창 특별강연, 전통 악기와 무용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방문객과 함께 호흡했다. 또한, 연꽃차, 오미자차 등 전통음료 시음회를 곁들여 즐거움을 더했다.

‘소창체험관’은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로 중단된 강화도의 소창 역사를 주제로한 전시·해설, 소창 손수건 스탬프 만들기 체험, 전통 한복 체험 등 다시 운영하고 있다. 입장료·체험료는 무료이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한편, ‘소창체험관’은 ‘강화 원도심 도보여행 코스’와 함께 가족 단위 방문객과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입소문을 타며, 하루 400여 명이 방문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 원도심 골목에 위치한 소창체험관에서 강화의 역사와 매력을 온몸으로 느끼시길 바란다”며 “다채롭고 알찬 행사로 소창체험관이 지역의 역사문화체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강화군은 지난 18일 소창체험관에서 주민참여형 문화행사인 ‘6월, 소창으로 소풍가자!’ 행사를 개최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주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소창과 각종 공예품을 전시·판매하는 플리마켓, 한복

강화도로 떠나는 아트투어 ‘늘(NLL) 평화 철책길’

|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일 운영 |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평화와 통일의 감각을 일깨우는 ‘아트투어’를 진행한다.

6~7월 테마인 ‘평화의 감각을 찾아서’ 프로그램은 ‘늘(NLL) 평화의 철책길’인 갑곶돈대를 시작으로 연미정과 고려천도공원을 거쳐 평화전망대에 이르는 16km를 한강하구 너머 북녘과 마주하고 걸으며 평화의 감각을 일깨우는 미션으로 구성됐다. 또한, 미션 완료 후에는 강화읍 원도심에 모여 천연직물인 강화 소창으로 나만의 평화 심볼을 완성해 표현하거나 자율일정을 즐길 수 있다.

‘아트투어’는 오는 11월까지 운영된다. 6~7월은 ‘평화의 감각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안보와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고, 8~9월은 ‘피스 크리에이티브’를 진행해 다채로운 창작활동을 즐기고, 10~11월은 ‘평화 마을 여행’으로 민통선 안의 마을 곳곳에 숨어있는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발견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매주 토, 일요일에 1회 운영되며 참가비는 5천 원으로 회당 20명 이내로 운영된다. 이동편의를 위해 서울(합정역)에서 강화를 오가는 버스가 제공되며, 미션 수행을 완료한 체험자에는 8천 원 상당의 지역 상점 이용 쿠폰과 소정의 기념품이 지급된다.

투어 참여는 네이버에 ‘플레이피스강화’를 검색하거나 홈페이지(<http://playpeace.net>)를 통해 예약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남북 평화를 상징하는 늘(NLL) 평화의 철책길에서 평화를 느낄 수 있도록 투어 상품을 개발했다”며 “가족과 함께 참여해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찾아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

- 최백하 기자

갯벌 파괴자 ‘갯끈풀’ 제거 총력

| 민관 협력으로 ‘갯끈풀 없애고 생태계 살린다’ |



갯끈풀 제거 및 관리사업 주민설명회(사진제공 강화군청)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16일 해양수산부, 인천시, 해양환경공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화도면 동악해변에서 ‘갯끈풀 제거 및 관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갯끈풀 수매사업은 갯끈풀 제거작업에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

는 사업으로 갯끈풀 제거 효과(뿌리뽑기 방식)를 높이고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갯끈풀 수매사업을 비롯해 갯끈풀 식별 및 신고 방법 등을 설명해 주민의 사업 참여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다.

군은 해양수산부, 인천시, 해양환경공단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갯끈풀의 침입 초기단계부터 지상부 줄기와 지하부 뿌리를 제거하고 갯벌을 뒤집는 방법으로 갯끈풀을 완전히 퇴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갯끈풀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유해해양생물이자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계교란생물로 갯벌의 육지화를 초래하고, 조개류와 게 및 토종 염생 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생태 교란 식물이다. 지난 2008년 강화군 남단 갯벌에서 처음 발견된 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생물다양성의 보고(寶庫)이자 천연기념물(419호)인 강화갯벌에 유해종인 ‘갯끈풀’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함께 공조하여 관리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최상의 품질 ‘강화 사자발 약썩’ 수확

| 수확량은 적지만 품질은 최상 |



‘강화 사자발 약썩’ 수확현장(사진제공 강화농업기술센터)

약썩의 수확적기인 단오절을 맞아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강화약썩 수확이 한창이다.

강화를 벗어나면 모습 자체가 변형되면서 고유의 향과 성분이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지역적 특색이 뚜렷한 작물인 ‘강화약썩’은 해풍을 맞고 자라 썩임의 생김새가 꼭 사자발 모양으로 갈라져서 마디마디 착생하고 뒷면에 흰털이 나 있어 ‘사자발썩’이라고도 불린다.

‘사자발썩’은 유파틸린(eupatilin), 자세오시딘(jaceosidin)과 같은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이 높아 한약재 도매시장에서 제일로 친다. 동의보감은 독이 없고 만병을 다스리며 부인병에 좋아 자식을 낳게 한다고 했으며, 본초강목에는 썩은 속을 덥게 해 냉을 쫓으며 습을 덜어 준다고 기록했다.

군은 민관 합동 약썩 전문가로 이루어진 ‘강화약썩품질보증위원회’를 통해 강화약썩에 대한 품질을 인증하고 있다. 강화약썩은 약재 외에도 뜸썩과 썩환, 썩분말, 썩차, 썩음료 등으로 상품화되어 일반인들에게 판매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단오절에 수확되는 강화약썩의 품질이 가장 뛰어나다”며 “특히, 올해처럼 일조량이 많고 강수량이 적은 해에는 수확량은 적지만 최상의 품질의 약썩이 생산된다”고 말했다. (문의: 강화군농업기술센터 소득작목팀 ☎032-930-4163) **☎**

- 최벽하 기자

Photo NEWS 내고향을 훈훈하게 지키고 가꾸는 사람들



심폐소생술 교육(보건소)



불은면 클린화단 조성



드림스타트 '뮤비데이'

가뭄피해 최소화 위해 강화·옹진 등에 가뭄대책비 지원

| 강화, 옹진 등 가뭄심한 도서지역 위주로 지원 ... 총 3억3천만 원 |

| 관정개발, 농배수로 준설 등 시설개선으로 향후 가뭄피해 예방에 활용 |

인천광역시시는 지난해에 비해 적은 강우량으로 인해 논·밭작물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강화군과 옹진군, 남동구에 총 3억3천만 원의 가뭄대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모내기 등이 집중되는 올해 5월의 인천지역 누적 강우량은 5.4mm로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강우량 191.5mm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가뭄대책비 1억8천만 원과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억5천만 원 등 총 3억3천만 원을 도서지역인 강화·옹진군 등에 긴급 지원*해 가뭄해소 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 강화군 1억5천만 원, 옹진군 1억7천만 원, 남동구 1천만 원 원

이번 사업비는 관정 개발, 농배수로 준설 등 시설개설 및 확보에 사용됨에 따라 올해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가뭄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강화군은 삼산, 송해, 교동지구 등에 관정 개발을, 옹진군은 백령지구 농배수로 준설과 덕적, 자월, 영흥지구 관정 개발을, 남동구의 경우에는 급수차 지원 등을 통해 가뭄 해소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교동면 고구저수지 농업용수 공급 및 가뭄상황 확인(사진제공 인천시)

지난해에는 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으로 강화군에서는 양사지구에 용배수로 준설(농수로 사석쌓기 L=250m, H=4m) 1개소, 옹진군에서는 북도지구에 관정 개발(1공), 농배수로 준설(1개소), 백령지구에 관정 정비, 용수관로 설치, 덕적지구에 관정 개발(2공), 영흥지구에 관정 개발(1공) 등 가뭄대책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강승유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대체수원 개발 등 가뭄대책비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점검에 만전을 기해 논·밭작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

인천시, 저소득 15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대상 |

| 대상자의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에 따라 인천e음 카드로 지급...최대 145만원 |

인천광역시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덜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이달 29일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2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3만 가구(중복 제외) 등 약 15만 가구다.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지급되며,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급여 자격별·가구원수별로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수급 자격·가구 규모별 지원액(1회 한시 지급)>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 가구	7인 이상
생계·의료	400,000	650,000	830,000	1,000,000	1,160,000	1,310,000	1,450,000
보장시설	1인 200,000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300,000	490,000	620,000	750,000	870,000	980,000	1,090,000

지급방식은 지원 취지를 고려해 현금 대신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인천e음 카드의 충전방식으로 지원한다.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유흥, 향락, 사행, 레저 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되며, 이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e음카드를 지참한 후 관할 동 주민센터나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사후 충전을 신청하면 다음날 e음카드에 입금(충전)된다.

e음카드를 분실했거나 카드를 미소지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카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640억 원의 국비를 일시에 지원하고 연말까지 전액 소비하게 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비 여력을 향상시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최근 물가상승으로 생활고를 겪고 계신 저소득 시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 송기훈 기자

인천시,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위용 뽐내



야간명소-월미도(사진제공 인천시)

| 2022 LUCI 아시아 도시조명 워크숍에 인천 야간특화디자인 우수사례 발표 | | 인천 야간 명소화 정책, 국내 유일 우수사례 |

인천시가 국제무대를 통해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로의 위용을 뽐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17일, 「2022 루시 아시아 도시조명 워크숍」에 참가해 대한민국의 우수사례로서 ‘인천 야간 명소화 정책’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LUCI(국제도시조명연맹)는 도시조명 정책과 관련 기술 교류를 통해 도시의 디자인·환경·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2년 프랑스 리옹에 설립된 국제 협력체로, 이번 워크숍은 글로벌 도시들의 선진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도시조명연맹(LUCI)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코로나19 이후 도시조명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내의 우수 사례로 유일하게 인천광역시 사례가 소개됐다.

임철희 시 도시경관건축과 도시디자인팀장이 「인천광역시 야간명소화 정책」을, 신일기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가 「빛과 색, 디자인을 통한 테코레이션 인천 명소화」에 대해 발표했다.

인천 야간명소화 사업은 2018년 3월 시민들이 선정한 10대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천문화예술회관, 수봉공원, 인천대공원 등 선도 사업이 완료됐으며 인천시청, 화수부두, 인천항사일로 등에도 후속 사업이 추진 중으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야간명소-소래포구(사진제공 인천시)

마크 버튼 페이지(Mark Burton Page) LUCI 사무국장은 “인천은 전 세계에서 모이는 인천공항과 경제자유구역 등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면서 “루시(국제도시조명연맹)와의 우호관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손병득 시 도시경관건축과장은 “올해 말까지 자유공원, 소래포구,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등 주요 원도심은 물론 인천경제자유구역에도 새로운 야간명소를 조성하고, 루시(LUCI)와도 더욱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세계적인 명품 도시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

- 송기훈 기자

역사와 문화유산이 살아숨쉬는 '2022 안심관광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2년도 안심관광지'에 강화군은 총 7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안심관광지 7곳은 ▲고려궁지 ▲마니산 치유의 숲 ▲해든뮤지엄 ▲강화평화전망대 ▲동검도 ▲석모도 수목원 ▲전등사이다. 안심관광지는 한국관광공사가 안전한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 친환경적이고 위생·안전관리가 우수한 관광지로 지난해부터 선정해 오고 있다.

■ 고려궁지



고려궁지 전경

사적 제 133호로 지정된 고려궁지는 고려가 몽골군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하여 도읍을 개경에서 강화로 옮긴 1232년(고종 19)부터 다시 환도한 1270년(원종 11)까지 38년간 사용되던 고려궁궐터이다.

『고려사절요』에 의하면, 최우(崔瑀)가 군대를 동원하여 이곳에 궁궐을 지었다고 한다. 비록 규모는 작았으나 송도 궁궐과 비슷하게 만들고 궁궐의 뒷산 이름도 송악(松岳)이라 하였다고 한다.

강화의 궁궐은 행궁과 장녕전, 만녕전, 외규장각 등이 있었으나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에 의해 불타 없어졌다. 지금은 강화유수가 업무를 보던 동헌과 전소된 외규장각이 복원되어 있다.

■ 평화전망대



강화 평화전망대

평화전망대는 2.3km 거리에 불과한 한강하구 너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을 육안으로 볼 수 있다.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합쳐져 서해로 흘러들어가는 곳에 위치해 풍경이 아름답다.

평화전망대 2층에는 고성능 망원경과 전쟁의 참상과 흔적을 볼 수 있는 강화의 국방체험과 북한의 도발,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 통일정책을 볼 수 있는 끝나지 않는 전쟁과 우리는 한민족, 한국전쟁 당시의 배경과 국내·외 전쟁 발발과정 및 그 이후 생애 잊지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상황 등을 영상시설을 통해 볼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3층에는 이북의 온 산하가 한눈에 가까이 볼 수 있는 전망시설과 흐린 날씨에도 영상을 통해 북한 전경 등을 볼 수 있도록 스크린 시설이 되어 있다.

■ 동검도



동검도 전경

동검도는 본도와 연륙교로 연결되어, 끝없이 펼쳐진 갯벌에서 자연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붉은 일몰을 구경할 수 있는 코스로 유명하다.

■ 전등사



전등사

단군왕검의 세 아들이 쌓았다는 전설을 간직한 삼랑성내에 아늑히 자리 잡고 있는 전등사는 고구려 소수림왕 11년(381)에 아도화상이 처음 창건하고 진종사(眞宗寺)라 이름 지었다. 그후 고려 충렬왕비 정화공주가 이 절에 귀한 옥등을 시주했다해서 전할전, 등불등자(傳燈寺)를 써서 전등사로 개명한 사찰이다.

전등사에는 보물 178호 대웅보전, 보물 제393호 범종, 조선왕실실록을 보관했던 정족산 사고 등이 있다. 1866년 병인양요 때는 승군 50명이 전투에 참가한 호국 사찰로 당시 조선 수비대장이던 양헌수 장군 승전비가 전등사 동문 입구에 세워져 있다.

■ 마니산 치유의 숲

‘마니산 치유의 숲’은 민족의 영산인 마니산의 울창한 숲 속에서 서해바다의 상쾌한 바닷바람과 소나무 피톤치드를 온몸으로 느끼며 가족과 함께 힐링하기 좋다. 또한 2년 연속 인천광역시가 선정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되면서 건강한 삶과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여행지다.



마니산 치유의 숲

■ 해든뮤지엄

해든뮤지엄은 미술관의 문턱을 낮추고 자연과의 어울림과 소통을 주제로 다양한 예술 작품을 소개하고 있어 누구나 편안하게 작품을 보고 이해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해든뮤지엄

■ 석모도 수목원



석모도 수목원

석모도 수목원(강화군 삼산면 삼산서로 39-75)은 바다와 숲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녹색의 정원으로 울창한 숲과 다양한 자생식물 등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이용객 편의를 위한 숲속의 집과 휴양림을 연결하는 아늑한 오솔길 등 편안하고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연학습 체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

기고

인천교육의 도약을 기대하며,,



이 대 형

인천교총 회장/경인교대 교수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전과는 다른 답답함을 일상으로 만들었다. 감염병의 확대와 방역 등 여러 문제가 남아 있지만 안전하게 아이들의 학력 격차를 줄여갈 수 있도록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국과 교육청은 철저한 지원을 해야 한다.

보다 나은 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학교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제언을 더해보고자 한다. 인천 교육에 국한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 교육계 전반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의견으로 반영되기를 바란다.

우선, 기초학력신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력신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부정할 적이 없다.

학교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헌신하며 학력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입시의 틀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학력 수준을 알지 못한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은 컸지만 학교에서는 추상적인 수준의 답을 줄 수밖에 없었다. 학력신장은 학교에서 중핵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학력에 대한 재개념화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역사 인식과 국제적 시각을 겸비할 수 있도록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많은 학교들이 예산 계획을 세우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방역 물품을 교육청 차원에서 조달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학교마다 필요로 하는 물품의 성격이 다를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게 효과적이다. 방역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타시

도와 비교했을 때 지나친 삭감으로 학교의 기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과 양해를 구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의 절감을 해서라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본 운영비는 확보해줘야 한다.

인천의 각 지역에 혁신교육의 일환으로 행복배움학교를 만들어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교육감의 철학이 반영된 부분을 존중하고 싶지만 이러한 지정과 지원이 특정 학교에만 몰릴 경우 상대적인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행복배움학교의 교사 정원과 지원 규모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밝혀야 한다. 교육은 모두가 행복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정 단체나 성향의 교사들만을 위한 학교이거나, 승진의 발판 도구로 삼는 학교가 된다면 곧 명분을 잃게 될 것이다. 행복배움학교가 그들만 행복하기 위한 곳이라는 농담 아닌 농담이 회자되고 있음을 기억하길 바란다.

인천교육은 코로나에 대한 완벽한 방역과 안전을 기반으로 나름의 색깔을 분명히 갖는 교육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교육자치의 실현이 단순히 재정과 운영의 자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며, 교육 주체들 간의 민주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통해 무색무취의 교육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교육은 정쟁의 도구도 권력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교육의 기본은 어디까지나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사회, 국가 발전의 동력 마련에 있어야 한다. 우리 교육자들은 다시 한 번 교육의 기본을 생각하고 논해야 할 것이다.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위해 소수의 입장만을 반영한 정책이 아닌 공감의 교육 정책이 실현되길 기대해본다. f

제 4탄! 건강하게 여름나기

여름맛이 워크-온 챌린지

기간 : 6월 27일(월) ~ 7월 3일(일) 7일간
 목표걸음 수 : 1일 7,000보 한정 총 42,000보

자세한 사항은 워크온 챌린지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강화군 보건소 032) 930-4079

목표걸음 달성자 750명 선착순!

워크온 챌린지 도전 성공 기념품
 보온 보냉가방 ← 여름/겨울 다용용해! Good~

환 링

쿠폰 누르기 필수

제 26회 인천청소년연극제 강남영상미디어고 대상 수상

제 26회 전국청소년연극제 인천대표로 참가

지난 15일~18일까지 열린 제 26회 인천 청소년 연극제에서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가 대상을 거머쥐었다. 이번 수상으로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는 11월에 열릴 제26회 전국청소년연극제에 인천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대상 :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 ▲남자최우수연기상 : 이건아 학생 (3학년) ▲연기상: 남궁희학생(1학년) ▲우수지도교사상: 강근혜 선생님

이번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에서 연기한 '완벽하지 않아도,'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순수 창작극으로, 완벽함을 추구하는 소녀가 독서 토론 동아리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강박과 틀을 부숴버리고 진정한 자신과 친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긴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연극제에 참여한 강남영상미디어고 연극부의 한 학생은 “희곡부터 동선, 음악, 등 연극을 구성하는 모든 것을 계속해서 창작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서로 믿고 의지했기에 완성해낼 수 있었다. 특히 우리를 잘 이끌어준 연극부 담당 선생님과 연극부 단장 친구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수지도교사상을 받은 강근혜 선생님(지도교사)은 “학생들이 창작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 연극동아리 T-티는 아이

극을 써야겠다고 마음먹고 난 다음, 주제부터 구성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연극 제작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협동심과 자기표현 능력이 매우 신장되었다고 느끼고, 인천 지역의 공연 예술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앞으로도 청소년 연극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는 강화 지역에 있는 인천지역 최대 영상특성화고등학교로 촬영, 편집 코스와 더불어 연기코스를 운영하며 영상 콘텐츠 제작의 전반적인 기술을 가르친다. ㉠

건강참살이

지속되는 폭염 속, 온열질환 증상과 대처방법

건강한 여름나기 이렇게 준비하세요!

물 자주 마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 마시기 *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시원하게 지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샤워 자주 하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모자) ● 험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더운 시간대 (낮 12시~오후 5시)에는 휴식하기 *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건강상태를 살펴며 활동강도 조절하기 	매일 기온 확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 기온, 폭염특보 등을 확인하여 폭염 시 야외활동 자제하기

온열질환은 작은 실천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KDCA

폭염이 지속되면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유행성 각결막염, 진드기 매개 감염병, 비브리오패혈증, 냉방병 등의 각종 질병 및 가축·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기 전 전국의 온열 질환자가 183명(5월 20일 ~ 6월 25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표본감시 결과 통계)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73% 급증한 수치다. 무더위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신체 온도가 37~40도까지 오르며 심박출량 유지가 어려워 고혈압, 심장병, 당뇨, 뇌졸중 등의 만성 질환이 있거나, 고령자, 야외 근로자, 어린이들은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온열질환을 피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 첫째, 갈증이 없어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신다.**
 - 스포츠 음료나 수분이 많은 과일(수박·토마토·오이)을 자주 섭취
- 둘째, 시원하게 생활하기.**
 - 외출 시 밝은 옷을 입으며 창이 긴 모자, 부채, 햇빛 가리개 등을 구비
 - 냉방기기는 실내·외 온도차 5°C 내외 유지(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C~28°C 적당)
 - 샤워를 자주 한다
- 셋째,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합니다.**
 -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휴식을 취하고, 폭염특보 등 기상정보를 매일 확인

온열질환의 증상은 ▲고열 ▲구토 ▲빠른 맥박과 호흡 ▲두통 ▲피로감과 근육경련 ▲뜨거운 피부 ▲다량의 땀 배출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의식이 없는 온열질환 발생 시 119구급대에 요청을 한 후 시원한 장소에서 몸을 시원하게 유지하며 병원으로 후송되어야 한다. 구급대 도착 전 억지로 물을 먹이면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 부르시면 달려갑니다! ●
 군민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기동처리반 운영

◎ 월요일~금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신청·접수 (전화, 대면) → 일정통보 (문자, 전화) → 현장방문 (점검 및 보수)

강화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안내

☐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서 하는일 ~ ~

- ▶ 대상 : 강화군 취약계층(독거노인, 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읍·면장의 추천받은 사람 등)
- ▶ 서비스 : 사회취약계층 생활불편 서비스분야(건당 5만원 이하)
 - ◆ 전기 : 조명, 콘센트, 환풍기, 스위치 등 교체 및 보수
 - ◆ 설비 : 수도꼭지, 샤워기 등 부속교체, 모기장, 하수구, 배관 막힘 뚫기 등
 - ◆ 기타 : 못 박기, 문짝·문고리 보수 등



※ 접수처 및 문의처

◎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
 ☎ 032) 930-3391~3
 ◎ 각 읍·면사무소

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	내용	예약방법
소창 스탬프 체험	소창원단에 스탬프 이용 손수건 만들기	사전-당일
한복 체험	전통의상 한복 착용 및 사진 체험	사전
차 시음회	강화 특산품 순무차 시음	당일
직조 시연	소창 직조 및 연경 관람	당일

* 전 프로그램 상시 진행 중(월 휴관), 체험비 무료



**강화소창체험관
 프로그램 운영 재개**

운영 재개일 2022. 6. 1.(수)~



정관장

정관장 강화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로 5 1층
 M. 010.5313.3368

대표 김형식

032) 933.2304